

15세기 국어 부정문 연구*

-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을 중심으로 -

박형우**

|| 차례 ||

- I. 서론
- II. 15세기 '아니' 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 III. 15세기 '몰' 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 I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15세기의 국어 자료에서 부정문을 분류하여 유형과 그 비율, 서술어의 형태론적 특징에 따라 정밀하게 고찰하고, 그 변화의 양상과 원인에 대해서 살펴본다.

전반적으로 15세기 국어 부정문이 갖는 특징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5세기에 이미 장형부정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고려하면 15세기 자료에서는 '몰' 부정문보다도 '아니' 부정문의 경우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15세기 부정문에서는 '아니' 부정문과 '몰' 부정문에 관계없이, 서술어에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이 포함된 경우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용례는 극히 적으며, 대부분 삼입형의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아니', '몰' 부정문 모두 서술어의 형태적 조건에 따라 '파생어>합성어>단일어'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13년도 KNUE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음. 의미 있는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순으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나타난다.

주제어 : 15세기 부정문, 장형부정문화,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 단형부정문, 장형부정문

I. 서론

15세기는 한글 문헌 자료가 등장하면서 우리말의 과거 모습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기라는 특징이 있다. 대부분 후기중세국어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세기별 차이점에 대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후기중세국어 시기가 통사사의 입장에서 균질하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다.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15세기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특징을 ‘아니’ 부정문과 ‘뭇’ 부정문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5세기만을 대상으로 국어 부정문에 대해 논의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이태욱(2001)은 15세기 한글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유형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또한 허재영(2002)의 경우에는 15세기 부정문의 유형과 의미 문제를 중심으로 다루었으며, 김연주(2012)는 ‘金剛經諺解’의 부정문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는 대부분 부정문 형성 과정의 제약이나 변화 요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15세기 한글 문헌에 나타나는 부정문의 특징을 보다 면밀하게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아니’ 부정문과 ‘뭇’ 부정문을 중심으로 부정문에 나타나는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과 그 유형의 관계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15세기 전반의 부정문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21세기 세종계획에서 구축한 15세기 국어사 말뭉치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uniconc 프로그램을 검색 도구로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다만 자료 중 명백한 오류는 영인본 자료를 통해 확인 후 수정하였으며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판독이 어려운 자료는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본고에서 분석한 15세기 자료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 15세기 국어사 말뭉치 자료

연도	자료명	약호	연도	자료명	약호
1446	훈민정음해례	訓民	1466	구급방언해	救急方
1447	석보상절	釋詳	1467	목우자수심결	牧牛子
1447	용비어천가	龍歌	1467	몽산법어	蒙山
1447	월인천강지곡	月千	1475	내훈	內訓
1459	월인석보	月釋	1481	두시언해	杜詩
1461	능엄경	楞嚴	1481	삼강행실도	三綱勸懲
1463	법화경	法華	1482	금강경삼가해	金三
1464	금강경	金剛	1482	남명집	南明
1464	반야심경	般若	1485	관음경	觀音經
1464	상원사중창권선문	上勸	1489	구급간이방	救簡
1464	선종영가집	永嘉	1496	육조단경	六祖
1464	아미타경	阿彌	1496	진언공권	眞言
1465	원각경	圓覺	1500	개간법화경	改法

Ⅱ. 15세기 ‘아니’ 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1. ‘아니’ 단형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15세기 자료에서 ‘아니’ 부정소가 단형 부정문에 쓰인 문장 1,481개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부정문에 대해 ‘아니’가 수식하는 후행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우선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가. 보리미 아니 닐면 물 담풍 거시 업스릴씩 <月釋1:39b>
 나. 알꺃 能히 아로물 아니 아로미 이 所覺이니 <圓覺下3-1:30b>
 다. 우리들도 舍利를 더러주소셔 아니웃 주시면 히므로 어루호리이다
 <釋詳23:55b>
 라. 光明을 보습고 몰라 주구려 하니 그 아니 어엿브니잇가 <月
 千:38a>
 마. 우리 諸宮殿에 光明이 네 아니 잇더니로소니 <法華3:106b>
 바. 이 聚落에 다시 迷惑을 내려 아니흐려 <楞嚴4:35b>
 사. 安否는 便安흐신가 아니흐신가 흐는 마리라 <釋詳11:4a>
 아. 저므며 늘구미 잇느녀 아니흐녀 <楞嚴2:10a>
 자. 五情을 잡느니잇가 아니잇가 <法華7:21a>
 차. 三千大千 世界엿 잇는 微塵이 이 하녀 아니녀 <金剛:68a>
 카. 法에 得흔 고디 잇느녀 아니녀 <金剛57a>

우선 (1가~다)는 서술어로 쓰인 동사에 단형부정문이 쓰인 예이다. 특히 (1나)의 경우 인지동사 ‘알-’이 ‘아니’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현대 국어라면 부정소 ‘아니’보다는 ‘못’이 쓰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1다)의 경우에는 부정소에 ‘웃’이라는 조사가 결합한 것이다. (1라, 마)는 각각 형용사와 존재사가 ‘아니’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1바~아)는 각각 동사, 형용사, 존재사인 선행 용언을 대신하여 ‘아니흐-’가 단형부정문 형태의 의문문으로 쓰인 예이다. (1자~카)의 경우에는 (1바~아)와 같은 쓰임이지만 ‘아니흐-’ 대신에 ‘흐-’ 탈락한 형태가 쓰이고 있다.¹⁾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아니’ 단형부정문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1자~카)의 경우에는 ‘아니흐-’가 아니라 ‘아니다’ 부정문으로 파악할 수도 있지만 ‘-흐-’의 형태가 유지된 유형이 존재하므로 일단 ‘아니흐-’에서 ‘-흐-’가 탈락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표-2〉 ‘아니’ 단형부정문에서 서술어의 품사별 용례 비율

품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합계
용례	1,247	215	19	1,481
비율(%)	84.20	14.52	1.28	100

용언의 품사적 특징에 따라 단형 부정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존재사의 경우에는 그 용례가 상대적으로 동사와 형용사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 이는 근본적으로 ‘아니’가 가진 의미적 특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상태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형용사나 존재사에 대한 부정도 가능하지만 ‘아니’가 화자나 주어의 의지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동사 부정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분포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있-’과 ‘없-’이 서로 모순 반의관계에 있어서 현대국어의 경우에도 부정문으로 쓰이는 경우가 극히 적은데 15세기의 자료에서도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아니’ 단형부정문을 분류해 보면 보다 명확한 특징이 드러난다.

- (2) 가. 迺終내 赤心이시니 卞 아니 스랑흐스별리 <龍歌79>
 나. 천이 업스면 卞 아니 分分別별흐리 <月釋20:60b>
 다. 사르미 제 모습 體性을 삼느니 아니 迷惑흐녀 <楞嚴2:20b>
 라. 산 것곳 아니 주기면 어둡 주리 업스니 <月釋11:4b>
 마. 엇디 늦거사 罷흐시니잇고 아니 비골포며 窸보니잇가 <內訓2:19b>
 바. 도로 淸淨을 得흐야 모던 길혜 아니 떠러디게 호리라 <釋詳9:6b>

(2가)와 (2나)는 서술어에 체언이 어근으로 포함된 경우로 (2가)에는 고유어가 (2나)에는 한자어가 포함되어 있다. (2다)는 한자어가 포함된 것은

(2나)와 같지만 동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인 예인데 이와 같은 용례는 15세기 자료에서는 (2다)가 유일하다. (2가~다)와 같이 체언이 포함된 서술어가 단형부정문으로 쓰이는 용례는 특히 그 수가 많지 않다. (2라)는 ‘죽-’에 사동접미사 ‘-이-’가 결합한 서술어가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이러한 유형의 단형부정문 역시 그 수가 많지 않다. (2마, 바)는 합성어가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인데 (2마)는 체언 어근과 용언 어간이 결합한 합성어가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2바)는 합성용언이 ‘아니’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으로 역시 이러한 예는 15세기 자료에서 동사에서만 드물게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체언 아니+ㅎ-’의 구조를 가진 문장을 단형부정문에 포함되는 하나의 유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부정문 형식은 기본적으로는 ‘아니 체언+ㅎ다’의 형식이 기대되는 것인데 실제로 이러한 부정문의 용례는 많지 않고, ‘체언 아니+ㅎ-’의 유형으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단형부정문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3) 가. 나도 現在 未來 一切 衆生을 시름 아니호리라 <月釋21:130b>
 나. 다 첫 믅스매 맛당 아니홀썩니 <楞嚴6:56b>
 다. 이 곧 生滅中에 生滅 아니호느 거시라 <楞嚴2:9a>
 라. 또 類를 조츠샤 化 | 一定 아니호 겨시니 <永嘉上89a>
 마. 내 늑의 이어기 도라 아니 오리라 호야늘 <三綱뎨뎨烈17>

(3가)와 (3나)는 고유어 체언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에서 부정소 ‘아니’가 체언과 접미사 ‘-ㅎ-’ 사이에 삽입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시름’과 ‘맛당’이라는 체언에 ‘-ㅎ-’가 결합하여 각각 동사와 형용사 서술어로 쓰인 예문인데 이 경우에는 동사의 예가 형용사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그 수가 많다. (3다)와 (3라)의 예문에서는 체언이 한자어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각각

동사와 형용사 서술어로 쓰인 것으로 역시 동사의 용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3마)는 앞에서 보인 삽입형의 단형부정문과는 차이가 있으나 부정소가 합성용언의 어간 사이에 삽입되어 있는데 그 예 역시 극히 적다. 일단 이러한 예문의 경우에도 합성용언의 단형부정문에 포함하여 정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에 따라 단형부정문의 유형에 따른 용례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표-3>와 같다.

<표-3>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아니' 단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형태	구조		수량	비율(%)	
단일어	고유어 동사		773	52.19	
	형용사		195	13.17	
	존재사		19	1.28	
파생어	일반 단형부정문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2	0.14
			형용사		
		접미사 포함	동사	38	2.57
			형용사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33	2.23
			형용사	1	0.07
	'아니' 삽입형 부정문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58	3.92
			형용사	4	0.27
파생어	'아니' 삽입형 부정문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333	22.48
			형용사	13	0.88
합성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형용사	2	0.14	
	합성 용언 어간	동사	10	0.68	
		형용사			
합계			1,481	100	

이러한 유형의 용례별 비율을 살펴보면 몇 가지 '아니' 단형부정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아니' 단형부정문에서는 전체 용례 중에서 서술

어가 고유어의 단일어인 경우가 66.64%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서술어가 고유어 동사이면서 단일어인 경우가 전체 용례의 52.19%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양이라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합성어가 ‘아니’ 단형부정문을 구성하는 예는 12개로 전체 ‘아니’ 단형부정문의 0.81%에 불과하다. 파생어의 경우에는 전체 비율로 보면 32.55%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의 용례는 전체의 5.00%에 불과하다. 나머지 파생어는 대부분 체언 어근과 ‘-ㅎ-’ 사이에 부정소 ‘아니’가 삽입된 ‘체언 아니ㅎ-’ 유형의 부정문으로 전체의 27.55%에 해당한다. 서술어가 체언 어근을 가진 파생어인 ‘아니’ 단형부정문 내에서만 살펴보면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은 15.35%(74개)에 불과하고 부정소 삽입형의 단형 부정문 비율은 84.65%(408개)를 차지하여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비율의 차이는 파생어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서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²⁾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전반적으로 서술어에 체언 어근이나 접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품사에 관계없이 전형적인 ‘아니’ 단형부정문 형성에 일정한 제약이 있음을 15세기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합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체언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에서 나타나는 ‘아니’ 단형부정문 형성 제약의 문제는 체언을 부정하는 ‘아니다’ 부정문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용언 내부에 포함된 체언의 존재가 일반적인 단형 부정문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하여 이러한 형식을 회피하고, 부정소가 체언과

2) 체언 어근이 포함된 동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 일반 단형부정문과 삽입형 단형부정문의 용례가 각각 71:39로 일반형이 15.37%, 삽입형이 84.63%의 비율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원래 그 용례가 많지 않은 형용사 서술어의 경우에도 체언 어근이 포함된 경우 단형 부정문을 형성할 때 각각의 용례가 1:17로 그 비율의 차이는 더욱 크게 나타난다.

접사 ‘-ㅎ-’ 사이에 삽입되는 유형의 부정문이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부정소 삽입형 부정문의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부정소 ‘아니’가 체언을 수식하는 형식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단형부정문 형성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단형부정문 외에 부정소의 위치가 특수하게 나타나는 부정문이 존재한다. 현대 단형부정문의 경우에는 부정소의 위치가 수식하는 서술어의 바로 앞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정소는 다른 부사와는 달리 그 위치의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그런데 15세기 자료 중에서 부정소의 위치가 특이하게 나타나는 용례가 일부 있다.

(4) 가. 나조희 婚媾 ㅎ고 새배 여희유물 니르느니 아니 너무 썩르니여 <杜詩8:67a>

나. 아니 다 낫거든 다시 머그라 <救急方下43b>

다. 이 아니 내 鹿母夫人이 나흔 고진가 <釋詳11:32b>

라. 아니 그 얼구를 傳흔 것가 <杜詩16:36a>

(4가)와 (4나)는 부정소 ‘아니’의 위치가 서술어의 바로 앞이 아니라 부사인 ‘너무’와 ‘다’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현대국어라면 단형부정문보다는 ‘너무 빠르지 않은가’와 ‘다 낫지 않거든’ 등으로 표현이 가능한데 15세기 자료에서는 부사 앞에 부정소가 위치하고 있다. (4다)와 (4라)의 경우에는 부정소의 위치가 더욱 특이하다. 이러한 용례는 모두 15개 정도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두시언해’에서 6개로 가장 많은 용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의문문에 쓰인 경우가 많다.³⁾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부정소의 위치 변화는 특정한 표현적 효과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4가, 라)는 각각 “無乃太匆忙”과 “無乃傳其狀”을 번역한 것인데 이를 고려하면 원문의 구성과도 이러한 부정소의 위치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2. ‘아니’ 장형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15세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소 ‘아니’가 쓰인 장형부정문은 7,023개가 추출되었다. ‘아니’ 단형부정문에 비하면 그 양이 매우 많다. 우선 연결어미에 따라 장형부정문의 유형을 분류할 수 있다.

- (5) 가. 그되논 瀟湘 되해 衡山의 노포물 보디 아니흐는다 <杜詩17:2b>
 나. 이제 ㅎ다가 닷디웃 아니흐면 萬劫을 어긋리니 <牧牛子44b>
 다. 寂滅은 사도 아니흐며 죽도 아니홀씨니 <月釋2:16a>
 라. 法 들들 아니흐리라 ㅎ샤 <月釋2:36b>

(5가)는 현대국어의 ‘-지’의 구개음화 이전 형태인 ‘-디’가 쓰인 예로 15세기 자료의 장형부정문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연결어미라 할 수 있다. (5나)는 이러한 ‘-디’에 보조사 ‘웃’이 결합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5다)의 경우에는 ‘-디’가 나타날 자리에 ‘도’가 나타난 것이다. 일단은 이 ‘도’의 경우에는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부정문의 경우 선행구와 후행구가 대구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두 구에 모두 ‘도’가 쓰인 부정문이 대부분이다.⁵⁾ (5라)의 경우에는 연결어미에 ‘-들/들’이 쓰인 것인데 모음조화도 파괴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연결어미가 쓰인 용례들을 비율에 따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 “내 나라해 나고져 願 禧 사르미 그리웃 아니흐면 正覺 일우디 아니호리이다 <月釋 8:62b>”와 같이 특이하게 ‘웃’만 나타난 용례가 있기는 하지만 (5나)의 ‘-디웃’과 같은 용례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웃’만 단독으로 쓰인 예가 극히 적어서 ‘웃’과 관련한 유형을 따로 분류하지 않았다.

5) (5다)의 용례의 경우에는 대구를 이루는 두 구의 내용을 모두 부정하는 것이어서 이러한 표현의 특징을 고려하면 ‘도’는 보조사로서의 ‘도’의 기능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15세기의 자료에서는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연결어미 탈락 이전의 형태 ‘-디도’가 나타나지만 ‘아니’ 부정문에서는 이러한 유형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표-4〉 연결어미에 따른 ‘아니’ 장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연결어미	-디	-도	- <u>ㄹ</u> /들	합계
수량	6,980	28	15	7,023
비율(%)	99.39	0.40	0.21	100

‘아니’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동사나 형용사, 존재사와 관련한 모든 용례가 나타난다는 점에는 단형부정문과 차이가 없지만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에 따른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일부 차이가 있다.

(6) 가. 尊존을 일컫디 아니홀 고디 업도다 <金三5:11b>

나. 衆生이 오로 覺中에 이실시 니르와든 念을 아디 아니홀 업스니 <원각하3-2:42b>

다. 太子를 더러 브리디 아니흐면 <釋詳11:19a>

라. 흐 번 일흔 이룬 足히 슬프디 아니흐니 <杜詩8:53b>

마. 이젠 그러티 아니흐야 寒한山산이 올 時쌍節절스 길홀 니저늘 <金三3:23b>

바. 이 會에 있디 아니흐니란 네 반드기 爲흐야 퍼 니르라 <法華4:35a>

사. 브름 부는 帳은 樓의 브텃디 아니흐놏다 <杜詩14:22a>

(6가)는 일반적인 동사 서술어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6나)는 인지동사 ‘알-’이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아니’ 부정문보다는 ‘몰’ 부정문이나 ‘모르-’가 쓰일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예문이다. (6다)는 서술어에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이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6라)는 정상형용사, (6마)는 지시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한 것이다. 또한 (6바, 사)는 존재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특히 (6사)는 존재사가 보조용언으로 쓰여 서술어가 된 경우에 부정문을 형성한 예문이다.

이러한 품사별 부정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5〉 ‘아니’ 장형부정문에서 서술어의 품사별 용례 비율

품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합계
용례	5,454	1,209	360	7,023
비율(%)	77.66	17.21%	5.13%	100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니’ 단형부정문과 비교할 때 형용사와 존재사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아니’ 단형부정문의 경우 형용사는 14.52%, 존재사의 경우에는 1.28%로 나타나던 것이 장형부정문에서는 조금씩 비율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동사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특히 존재사가 서술어인 경우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는데 현대국어에서도 존재사의 경우에는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장형부정문에서 중요한 것은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모든 품사에서 그 용례의 수에서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다. 전체 동사 중에서 ‘아니’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수를 비교하면 장형부정문이 4배 이상 더 많으며, 형용사의 경우에는 거의 6배 가까이 장형부정문의 용례가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존재사의 경우에는 거의 19배 정도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품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아니’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을 비교해 보면 형용사와 존재사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동사의 경우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아니’ 장형부정문에 대하여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7) 가. 徐州人 秃尾는 足히 스랑티 아니 홀리로소니 <杜詩16:62b>

- 나. 소닐 미더 取호고 굴히요미 맞당티 아니호니라 <圓覺下2:41b>
 다. 因緣과 自然과 모든 和合호 相과 和습디 아니호를 퍼 니르시나
 <楞嚴2:77a>
 라. 또 이근히 호더시디 便安티 아니호신 므딕 잇거시든 <內訓1:36a>
 마. 사르미 信으로 부터씩 오면 如來 | 소기디 아니호며 <法華1:205a>
 바. 원여들차힌 소리 놓도 놋잡도 아니호사 <月釋2:58b>
 사. 衆生들히 惡趣 中에 一日 一夜도 떠러디디 아니케 호라 <月釋
 21:179a>

(7가)는 고유어의 체언 어근을 가진 동사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에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고, (7나)는 (7가)와 같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7다)는 한자어 체언 어근을 가진 동사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일 때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7라)는 (7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때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7마, 바)는 접미사가 포함된 파생어가 각각 동사와 형용사로서 서술어로 쓰이면서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며, (7사)는 합성 동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에 따라 장형부정문의 유형에 따른 용례의 수를 살펴보면 <표-6>과 같다.

<표-6>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아니' 장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형태	구조	수량	비율(%)	
단일어	고유어 동사	3,908	55.65	
	형용사	942	13.41	
	존재사	360	5.13	
파생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41	0.58
		형용사	19	0.27

	접미사 포함	동사	270	3.84
		형용사	12	0.17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1,061	15.11
		형용사	233	3.32
합성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13	0.19
		형용사	3	0.04
	합성 용언 어간	동사	161	2.29
		형용사		
합계			7,023	100

각 유형에 따라 그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아니’ 장형부정문에서는 전체 용례 중에서 서술어가 고유어의 단일어인 경우가 74.18%로 ‘아니’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비교할 때 비율상으로는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례의 수를 비교하면 서술어가 단일어인 경우 ‘아니’ 단형부정문은 987개였는데 장형부정문은 5,210개로 나타나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반적으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이미 15세기 이전부터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는 증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서술어가 고유어 동사이면서 단일어인 경우는 전체 ‘아니’ 장형부정문의 55.65%로, 비율은 ‘아니’ 단형부정문과 큰 차이는 없으나, 용례가 3,908개로 단형부정문의 5배 정도에 달한다. 이는 형용사나 존재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15세기 당시에 부정문 형성에 일정한 제약이 없는 단일어의 경우에도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이미 압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인 장형부정문은 23.29%로, 삼입형을 제외한 전형적인 단형부정문 5.00%와 비교하면 비율상으로도 크게 차이가 있다. 또한 실제 용례는 1,636개로, 삼입형을 제외한 단형부정문 74개의 22배 이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파생어의 경우에는 삼입형 단형부정문을 형성하

는 경향과 더불어, 장형부정문으로 변화하는 분명한 경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생어로서 체언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의 경우에는 ‘아니’ 장형부정문의 용례가 단형부정문과 비교하여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삽입형을 제외한 단형부정문에서 체언 어근이 포함된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의 용례가 36개이며 그 대부분이 한자어 어근이었는데⁶⁾,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체언 어근이 쓰인 용례가 더욱 압도적이어서 전체 용례가 1,354개이다. 이는 체언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의 부정문 형성 과정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체언 어근을 가진 파생어 중에서 전형적인 단형부정문과 삽입형 부정문, 그리고 장형부정문의 용례 수를 비교해 보면 36:408:1,354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강력하지만 삽입형의 단형부정문 형성 또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서술어의 부정문 유형 변화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접미사가 포함된 일반적인 파생어가 서술어인 경우에도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난 것이 38개인 반면 장형부정문에서는 282개의 용례가 나타나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합성어가 ‘아니’ 장형부정문을 구성하는 예는 전체 장형부정문의 2.52%

6) 서술어가 한자어 체언 어근인데도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난 경우를 좀 더 자세히 살펴 보면 해당 한자어가 독립성이 없는 한자어인 경우가 많다. 결국 이 경우에는 한자어가 ‘-ㅎ-’를 포함하여 하나의 어간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36개의 용례 중에서 1음절의 한자어 어근이 단형부정문으로 쓰인 예가 26개로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이런 용례가 삽입형으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 역시 1음절의 한자어가 당시 독립된 체언으로 기능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殺 **아니호미** 이 放生이오 盜 아니호미 이 布施오 <永嘉上38b>”와 같이 1음절의 한자어 어근을 가진 삽입형 단형부정문은 32개뿐인데, 전체 삽입형 단형부정문의 용례가 408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殺’과 같은 1음절의 한자어가 독립된 체언으로서 당시 기능하는 데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러한 부정문은 언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어적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지만 용례의 수는 177개로, 용례가 12개뿐이었던 단형부정문과 비교하면 14배 이상 큰 차이를 보인다. 합성어가 단형부정문으로 나타난 것이 단형부정문의 0.81%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율도 3배 정도 증가한 것이다. 이 역시 합성어의 경우에도 장형부정문화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Ⅲ. 15세기 ‘몰’ 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1. ‘몰’ 단형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몰’ 단형 부정문으로 쓰인 용례를 본 연구에서는 1,405개 추출하였다. ‘몰’이 수식하는 서술어의 품사에 따라 부정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8) 가. 圓教 | **몰** 드월씨 그 中엿 보비엿 거시 쏘 하며 <月釋13:27b>
 나. 世尊하 내 神力으로 즈른 劫에 헤아려도 **몰** 알리로소이다 <月釋21:14a>
 다. 다 機를 應호야 道理예 마조미 **몰** 도호니 업슬씨 善이라 호니라 <釋詳13:28a>
 라. 목수미 **몰** 이실까 너겨 여희스 必라 오니 <月釋21:217a>
 마. 네 집 안해 이서 門이 能히 보느녀 **몰호느녀** <楞嚴1:66a>
 바. 衆도 다 便安호가 **몰호가** <法華4:129b>
 사. 제 平호야 能히 害를 **몰게** 호시니실씨 <法華7:102a>

(8가, 나)는 서술어로 쓰인 동사에 단형부정문이 쓰인 예인데, 특히 (8나)의 경우 인지동사에 해당하는 ‘알-’이 ‘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이 경우 ‘몰 알-’보다는 ‘모르-’가 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것이다. 또한 (8다, 라)는 각각 형용사와 존재사가 ‘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또한

(8마, 바)는 각각 동사, 형용사인 선행 용언을 대신하여 ‘못-하-’가 단형부정문 형태의 의문문에 쓰인 예이다. ‘아니’ 단형부정문과는 달리 ‘못’ 단형부정문에서는 부정소 ‘못’에 ‘곳/웃’ 등이 결합한 형태는 나타나지 않으며, 존재사를 대신하여 ‘못-하-’가 쓰인 예도 나타나지 않는다. (8사)는 단형부정문에서 ‘-하-’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는 예문이다.

‘못’ 단형부정문의 경우 후행하는 품사에 따라서 일정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율을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7〉 ‘못’ 단형부정문에서 서술어의 품사별 용례 비율

품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합계
용례	1,378	22	5	1,405
비율(%)	98.08	1.57	0.36	100

용언의 품사적 특징에 따라 ‘못’ 단형 부정문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사와 형용사의 비율에서 동사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아니’ 단형부정문에서 보이는 비율의 차이보다 더욱 크다.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아니’ 단형부정문은 14.52%나 나타났지만, ‘못’ 단형부정문에서는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8.08%로 절대적이고, 형용사와 존재사의 비율은 2%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능력’ 부정으로 대표되는 ‘못’의 의미가 형용사와 존재사의 부정문 형성에 제약으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국어의 경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못’ 단형부정문을 분류해 보면 보다 명확한 특징이 드러난다.

- (9) 가. 이 兵馬 | 하다가 瞿曇이를 **못** 降服힐까 하야 <月釋4:11a>
 나. 므숫 이리 **못** 맛당하야 날 브리고 가려 하는다 <月釋22:53a>

- 다. 내 모던 므스믈 내야 菩提를 **몰** 일우리로소이다 <月釋7:49a>
 라. 이 곤흔 妙相은 네 **몰** 듣보더니로소니 <法華3:123a>

(9가)는 서술어에 한자어 체언 어근이 포함된 예이다. ‘고유어 체언 어근’을 포함한 파생어가 단형부정문을 이룬 예가 ‘몰’ 단형부정문에는 발견되지 않았다. (9나)는 체언 어근을 가진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이와 같은 용례는 15세기 자료에서는 (9나)가 유일하며, (9가, 나)와 같이 체언이 포함된 서술어가 단형부정문으로 쓰이는 용례는 그 수가 특히 적다.⁷⁾ (9다)는 ‘일-’에 사동접미사 ‘-우-’가 결합한 서술어가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역시 그 예가 많지 않다. 또한 (9라)는 합성용언이 ‘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으로 이러한 예는 15세기 자료에서 동사에서만 드물게 발견된다.

‘아니’ 단형부정문과 마찬가지로 ‘몰’ 단형부정문에서도 ‘체언 몰+ㅎ-’의 구조를 가진 단형부정문이 나타나고 있다.

- (10) 가. 無 업서 므스믈로 스랑 몰ㅎ며 이브로 議論 **몰호되** <月釋9:23a>
 나. 不可思議는 어루 스랑ㅎ며 議論 **몰호씨라** <月釋10:27a>
 다. 會中에 ㅎ나히나 淸淨 **몰호면** 이마티 道場이 내중내 이디 몰ㅎ느니라 <法華7:173a>
 라. 다룬 뒷 請을 바다 머리 들녀 도라 **몰** 와 중의 次第호미 겨를 업더니 <楞嚴1:32a>

7) 한자어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가 전형적인 ‘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용례는 36개인데 이 중에서 33개는 모두 독립성이 없는 1음절 한자어가 ‘-ㅎ-’와 결합하여 서술어를 이룬 예에 해당한다. 예를 들면 “하늘 ㅎ시는 이리라 **몰** 免 ㅎ리라 <三綱런단孝29>” 같은 예문인데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같이 이런 예들이 일반 단형부정문으로 쓰이는 것은 1음절 한자어가 체언으로서 독립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10가)는 ‘스랑ㅎ-’라는 동사에서 부정소 ‘믄’이 고유어 ‘스랑’과 ‘-ㅎ-’ 사이에 삽입된 부정문이다. 이러한 유형의 형용사 서술어도 (10가)와 같은 방식으로 부정문을 이룬 경우는 15세기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10나)는 한자어 체언 어근이 포함된 서술어에서 부정소 ‘믄’이 체언과 접미사 ‘-ㅎ-’ 사이에 삽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10다)는 (10나)와 차이가 없으나 ‘淸淨ㅎ-’가 형용사라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또한 (10라)의 경우에는 ‘아니’ 부정문에서 살펴본 (3마)의 예와 같이 ‘도라오-’라는 합성용언에서 어간과 어간 사이에 부정소 ‘믄’이 삽입되어 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이러한 예를 고려하면 당시 ‘도라오-’가 하나의 합성용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⁸⁾ 이러한 통사적 합성어 이외에 비통사적 합성어와 관련하여 부정소가 삽입되어 부정문을 형성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상의 유형에 따라 단형부정문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8〉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믄’ 단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형태	구조		수량	비율(%)	
단일어	고유어 동사		1034	73.59	
	형용사		20	1.42	
	존재사		5	0.36	
파생어	일반 단형부정문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형용사	1	0.07
		접미사 포함	동사	28	1.99
			형용사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36	2.56
			형용사		

8) 통사적 합성어의 경우에는 연결어미의 개입이 있으므로 당연히 기원적으로는 어구가 하나의 단어로 변하는 어휘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정소가 두 용언 어간의 사이에 삽입되는 예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당시 해당 단어가 하나의 단어로 어휘화하는 과정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게 하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뭉' 삽입형 부정문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75	5.34
			형용사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176	12.53
			형용사	1	0.07
합성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형용사		
		합성 용언 어간	동사	29	2.06
			형용사		
합계			1,405	100	

이러한 유형의 용례별 비율을 살펴보면 몇 가지 '뭉' 단형부정문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우선 '뭉' 단형부정문에서는 전체 용례 중에서 서술어가 고유어의 단일어인 경우가 75.37%로, 66.64%의 '아니' 단형부정문보다도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서술어가 고유어 동사이면서 단일어인 경우가 전체 용례의 73.59%를 차지하여 압도적인 양이라 할 수 있다. 가장 비율이 낮게 나타난 것은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합성어의 경우로 29개의 용례가 나타나 전체의 2.06%에 불과했다. 파생어의 경우에도 전체 비율로 보면 22.56%로 '아니' 부정문보다도 비율이 감소했다. 그러나 '아니'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삽입형의 단형부정문이 더 많은 용례를 보이고 있다.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의 경우 파생어가 서술어인 경우 65개로 전체의 4.63%에 불과하지만 삽입형으로 나타나는 단형부정문은 252개의 용례가 보이며 전체의 17.94%를 차지해서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체언 어근을 가진 '뭉' 단형부정문 내부의 비율로만 보면 289개 중에서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이 12.80%(37개), 삽입형 단형부정문이 87.20%(252개)로 나타나 삽입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다만 이러한 유형의 서술어가 형용사인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이나 삽입형 단형부정문의 용례가 매우 적게 나타나

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⁹⁾ 이는 형용사 서술어가 ‘못’ 단형부정문에 쓰인 예가 극히 적은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입형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정도는 ‘못’ 단형부정문보다는 ‘아니’ 단형부정문에서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⁰⁾ 또한 접미사가 포함된 서술어의 경우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예는 전체 단형부정문의 1.99%에 불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술어에 체언 어근이나 접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일반적인 ‘못’ 단형부정문 형성에 제약이 있음을 15세기 자료에서도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약은 합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못’이 쓰였으나 일반적인 단형 부정문으로 보기 어려운 예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 그 예를 간단히 보이면 다음과 같다.

- (11) 가. 여러 가짓 受苦人 이룰 一劫 中에 **못** 다 니르리이다 <月釋21:47a>
 나. 모니미시니 양직 摩耶夫人만 **못흐실썩** 버근 夫人이 드외시니라
 <釋詳6:1b>

(11가)는 부정소 ‘못’이 ‘니르-’라는 용언 어간을 수식한다기보다는 그 앞에 위치하는 부사 ‘다’를 수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를 부정문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부정소가 부사를 부정하는 형식을 부정문으로 보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¹¹⁾ (11나)는 ‘못흐

9) 형용사가 체언 어근을 가진 서술어일 때 일반적인 단형부정문과 삼입형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은 (9나)와 (10다) 각각 1개뿐이다.

10) ‘아니’ 단형부정문은 전체 단형부정문 내에서 일반형과 삼입형의 비율이 5.00% : 27.55%로, 체언 어근을 가진 단형부정문 내부로만 보면 일반형과 삼입형이 8.11% : 91.89%로 나타나 ‘못’ 부정문보다 더 차이가 크다.

11) ‘못’과 ‘다’의 문제를 고려할 때 부정문 여부와 관련하여 이 둘을 하나의 단어로 인정할 수 있는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사전 집필자마다 이 문제에 대한 견해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유창돈(1964:324)에서는 ‘못다’를

-’가 쓰인 용례이지만 앞에 ‘-만’과 함께 쓰여 사실상 ‘-만ㅎ-’의 부정문을 이룬 경우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부정소가 ‘-만’과 ‘-ㅎ-’ 사이에 삽입되어 나타나는 형식을 이루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삽입형 단형부정문과 관련이 있다고도 할 수 있지만 체언 어근과 관련된 것이 아니며, 이때의 ‘몰ㅎ-’가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라는 특별한 의미로 쓰이고,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고도 할 수 있으나 대당긍정문을 설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서 일단 따로 분류한다.¹²⁾

2. ‘몰’ 장형부정문의 유형과 비율

15세기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정소 ‘몰’이 쓰인 장형부정문은 4,286개가 추출되었다. ‘아니’ 부정문만큼은 아니지만 ‘몰’ 단형부정문에 비하면 역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형부정문은 우선 장형부정문에 쓰인 연결어미에 따라 유형을 다시 분류할 수 있다.

(12) 가. 蔡姬 只恁매 能히 죽디 몰ㅎ니라 <內訓2:29a>

나. 殘孛結縵이 업디웃 몰ㅎ면 네 오디 말라 ㅎ고 <月釋25:5b>

하나의 단어로 올리면서도 풀이와 용례에서 띄어쓰기를 하여 ‘몰 다’로 적고 있는데 ‘몰내’에 대해서는 역시 단어로 올리면서도 용례에서 띄어쓰지 않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글학회(1992)와 김영황(1993)에서는 ‘몰다’를 독립된 단어로 등재하지 않았으나 ‘몰내’는 하나의 단어로 등재했다. 또한 중세국어 관련 자료는 아니지만 홍윤표 외(1995)에서는 ‘몰다’뿐만 아니라 ‘몰내’ 역시 단어로 등재하지 않았다. 비교적 최근의 자료인 박재연(2010)에서는 ‘몰다’와 ‘몰내’ 모두가 실리지 않은 대신에 ‘몰내’만 하나의 단어로 등재되어 있다.

12) 익명의 십사자의 견해와 같이 (11나)에서 ‘만’을 비교의 보조사로 보고 ‘몰ㅎ-’는 단형부정문으로 볼 수도 있다. 이 문제는 ‘만ㅎ-’를 하나의 단어로 볼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데 유창돈(1964: 303)에서는 이를 접미사로 처리했다. 그런데 “도로힘을 용납홀 만ㅎ더니<小언六 127>”과 같은 예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단순히 접미사보다는 보조형용사로 쓰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 갈 떠를 몰라 비 골쁘고 목 몰라 사도 몰흐며 죽도 몰흐야 <月釋 22:50b>

라. 凡夫 | 갓근 惑心으로 妄量엿 헤물 그치들 몰흐야 <月釋7:45b>

(12가)는 ‘-디’가 장형부정문의 어미로 쓰인 예이고, (12나)는 이러한 ‘-디’에 보조사 ‘옷’이 결합한 것이며, (12다)는 ‘-디’가 나타날 자리에 ‘도’가 나타난 것이다.¹³⁾ 특히 이러한 유형의 부정문의 경우 선행구와 후행구가 대구로 이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며 두 구에 모두 ‘도’가 쓰인 부정문이 대부분이다. (12라)의 경우에는 연결어미에 ‘-들/들’이 쓰인 것이다. 이러한 연결어미가 쓰인 용례들을 비율에 따라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9〉 ‘몰’ 장형부정문의 연결어미별 분포 비율

연결어미	-디	-도	- <u>들</u> /들	합계
수량	4257	11	18	4,286
비율(%)	99.32	0.26	0.42	100

‘몰’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도 서술어의 품사적 특성에 따른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단형부정문의 경우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13) 가. 妙覺에 오르디 몰홀씨 法身 업스니라 <永嘉上82b>

나. 니저 아디 몰호몬 구슬 미오 醉흐야 누움 곤흐니라 <法華4:41a>

다. 大丈夫 | 이런 凶逆을 아사 브리디 몰흐고 北面흐야 臣下 | 드의
느니여 <三綱뎌던患15>

라. ㄱㄹ초미 업스면 즈라 곧 어디디 몰흐느니 <內訓3:6b>

마. 시혹 그러티 몰홀던덴 네를 브터 無몽명명人 封봉에 미혹흐며 <金

13) “괴운이 저거 토티 몰흐며 취취디도 몰흐거든 <救簡2:57a>”과 같이 ‘-디’ 다음에 보조사 ‘도’가 결합한 예도 나타나고 있다.

三2:13a>

바. 自不生滅을 일호면 生滅이 **있디 못흐리니** <月釋11:59b>사. 性을 **가겠디 못흐야** 隨緣호는 뜯과 性을 變티 아니흐야 <月釋11:68b>

(13가)는 일반적인 동사가 서술어인 경우에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13나)의 경우에는 인지동사 ‘알-’이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현대국어의 경우에는 ‘못’ 부정문보다는 ‘모르-’가 쓰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13다)는 서술어에 보조용언이 쓰인 문장이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13라, 마)의 경우에는 형용사가 ‘못’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인데 (13라)는 성상형용사, (13마)는 지시형용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현대국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못’이 ‘능력’의 부정을 의미하기보다는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3바, 사)는 존재사가 ‘못’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13바)가 일반적인 존재사를 부정한 것이라면 (13사)는 존재사가 보조용언으로 쓰여 서술어가 된 경우에 부정문을 형성한 예문이다.

이러한 품사별 부정문의 분포를 살펴보면 ‘못’ 단형부정문과 비교할 때 동사의 부정문이 대다수라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형용사와 존재사의 부정문 비율에는 일부 차이가 나타난다.

〈표-10〉 ‘못’ 장형부정문에서 서술어의 품사별 응례 비율

품사	동사	형용사	존재사	합계
응례	3,793	463	30	4,286
비율	88.50	10.80	0.70	100

위 표의 내용을 살펴보면 ‘못’ 단형부정문과 비교할 때 형용사와 존재사의 비율이 약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못’ 단형부정문

의 경우 형용사는 1.57%, 존재사의 경우에는 0.36%로 나타나던 것이 장형 부정문에서는 조금씩 비율이 증가했고, 상대적으로 동사의 비율은 줄어들었다. 특히 ‘못’ 단형부정문과 비교해 보면 형용사의 장형부정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현대국어에서도 형용사의 경우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을 통해 ‘기대에 미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대국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니’ 부정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못’ 장형부정문의 경우 모든 품사에서 그 용례의 수에서 단형부정문에 비하여 훨씬 더 많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체 동사 중에서 ‘못’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비교하면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거의 3배에 이르고, 형용사의 경우에는 20배가 넘는 정도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존재사의 경우에는 거의 7배 정도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품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못’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을 비교해 보면 형용사와 존재사에서 장형부정문의 경향이 동사의 경우보다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못’ 장형부정문에 대하여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따라 분류하여 그 분포를 살펴볼 수 있다.

- (14) 가. 이 사르미 못습 어두어 能히 외와 싱각디 못거든 <楞嚴7:46a>
 나. 이런 法律 이쇼미 맞당티 못흐이다 <內訓1:60b>
 다. 흐다가 그리 아니흐면 相應티 못흐리라 <永嘉下22a>
 라. 흐나히나 淸淨티 못흐면 일우물 득디 못흐리라 <楞嚴7:52b>
 마. 비록 흐 모를 아니 萬法을 노기디 못흐야 根과 境과 오히려 다르며 <楞嚴3:62b>
 바. 德이 구득디 못흐 디 업스샤미 니르산 普 | 시고 <法華7:156b>
 사. 사르미 이룰 因흐야 머리 노녀 도라오디 못흐야셔 <楞嚴6:80a>

(14가)의 예문은 고유어의 체언 어근을 가진 동사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인 경우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14나)는 같은 구조적 특징을 보이는 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예이다. (14다)는 한자어 체언 어근을 가진 동사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이면서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고, (14라)는 (14다)와 같은 구조를 가진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에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14마, 바)는 각각 접미사가 포함된 파생어가 서술어로 쓰이면서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14마)에는 동사 ‘늑-’에 접미사 ‘-이-’가 결합한 것이고, (14바)는 ‘ㄹ득’에 접미사 ‘-흐-’가 결합한 형용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인데 ‘-흐-’가 생략되어 나타나지 않고 있다. (14사)는 합성 동사가 장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유형에 따라 ‘묻’ 장형부정문의 유형에 따른 용례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서술어의 형태적 특성에 따른 ‘묻’ 장형부정문의 유형 분류

형태	구조	수량	비율(%)	
단일어	고유어 동사	2,790	65.10	
	형용사	311	7.27	
	존재사	30	0.70	
파생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7	0.16
		형용사	7	0.16
	접미사 포함	동사	205	4.78
		형용사	25	0.58
	한자어 어근 포함	동사	722	16.85
		형용사	120	2.80
합성어	고유어 체언 어근 포함	동사	1	0.02
		형용사		
	합성 용언 어간	동사	68	1.59
		형용사		
합계		4,286	100	

이러한 유형별 비율을 살펴보면 우선 ‘못’ 장형부정문에서는 전체 용례 중에서 서술어가 고유어의 단일어인 경우가 73.07%로 오히려 ‘못’ 단형부정문의 경우보다 비율로는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용례의 수를 비교하면 서술어가 단일어인 경우 ‘못’ 단형부정문은 1,059개의 용례가 있는 반면, 장형부정문에서는 3,131개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파생어의 경우에는 1,086개, 합성어는 69개의 예가 나타나서 단형부정문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못’ 부정문의 경우 전반적으로는 ‘아니’ 부정문과 마찬가지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15세기에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파생어의 경우에 특히 매우 강하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술어가 고유어 동사이면서 단일어인 경우는 전체 ‘못’ 장형부정문의 65.10%로 ‘못’ 단형부정문과 비교하면 역시 그 비율은 떨어진다. 다만 용례의 수를 비교하면 2,790개로 단형부정문의 2배 이상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인 단일어 동사의 경우에는 ‘못’ 부정문보다는 ‘아니’ 부정문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단일어인 형용사와 존재사의 경우를 살펴보면 ‘못’ 단형부정문의 경우 25개의 용례로 전체의 1.78%에 불과한데 ‘못’ 장형부정문의 경우에는 341개의 용례로 7.9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용례와 비율의 차이는 형용사의 경우에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아니’ 부정문과 비교하면 형용사와 존재사의 경우에는 용례의 수는 오히려 ‘아니’ 장형부정문이 많지만, 단형부정문과의 비율 차이를 고려하면 ‘못’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형용사와 존재사의 경우 ‘못’ 부정문에서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¹⁴⁾

14) ‘아니’ 부정문에서 단일어인 형용사와 존재사가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것은 214개, 단형부정문 중 14.45%인데 장형부정문에서는 1,302개로 전체 장형부정문 중에서

파생어가 쓰인 장형부정문을 살펴보면 전체 장형부정문의 25.34%로, 단형부정문의 22.5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렇지만 단형부정문 중에서 삼입형을 제외한 일반적인 단형부정문의 비율(4.63%)과 비교하면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실제 용례를 살펴보면 삼입형(252개)을 제외한 단형부정문이 65개로 나타난 반면, 장형부정문에서는 1,086개가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체언 어근이 포함된 파생어의 경우에는 삼입형으로 나타나는 단형부정문이 252개로 전체 단형부정문의 17.9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장형부정문의 경우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을 가진 장형부정문이 856개로 전체 장형부정문의 19.97%를 차지하고 있다.

합성어가 ‘못’ 장형부정문을 구성하는 예는 전체 장형부정문의 1.61%에 불과하지만 용례의 수는 69개이다. 이는 단형부정문이 29개의 용례로 전체 단형부정문의 2.06%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용례 수는 두 배 정도 차이가 있으나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 내에서 비율을 따져 보면 장형부정문에서 합성어의 부정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는 장형부정문에서 용례의 수와 장형부정문 내에서의 비율이 모두 단형부정문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못’ 부정문에서는 합성어가 부정문을 형성할 때 장형부정문화 하는 경향이 ‘아니’ 부정문에 비하여 약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8.54%를 차지하고 있다. 두 유형의 용례의 수를 비교해 보면 장형부정문이 6배 이상 많지만 비율로 보면 약 4% 정도의 차이로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단일어인 형용사와 존재사의 단형부정문은 25개로 단형부정문 중 1.78%를 차지하는 반면, 장형부정문에서는 341개로 7.96%를 차지한다. 용례의 수를 비율로 보면 장형부정문이 13배 이상 많고, 비율로만 보면 각 부정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6% 이상 차이가 나고 단형부정문의 비율보다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6배 이상 높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용사와 존재사의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은 ‘못’ 부정문에서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IV. 결론

지금까지 15세기 자료에 나타나는 부정문에 대해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앞에서 논의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서 논의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15세기에 이미 장형부정문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단형부정문과 장형부정문의 비율을 고려하면 15세기 자료에서는 ‘못’ 부정문보다도 ‘아니’ 부정문의 경우 장형부정문화의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못’ 부정문에서 단일어인 형용사가 서술어로 쓰일 경우 장형부정문을 형성하는 비율을 제외하면 서술어의 형태적 특징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유형에서 ‘아니’ 부정문의 장형부정문화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15세기 부정문에서는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 관계없이, 서술어에 고유어나 한자어 어근이 포함된 경우 전형적인 단형부정문을 형성한 용례는 극히 적으며, 대부분 삽입형의 단형부정문이나 장형부정문을 형성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삽입형 단형부정문보다는 장형부정문을 형성하는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넷째, ‘아니’, ‘못’ 부정문 모두 서술어의 형태적 조건에 따라 ‘파생어>합성어>단일어’ 순으로 장형부정문의 비율이 나타난다. 이 경우 ‘못’ 부정문보다는 ‘아니’ 부정문의 경우에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다섯째, 15세기의 ‘아니’ 부정문과 ‘못’ 부정문에서는 현대국어의 부정문과 달리 부정소가 합성용언의 어간 사이에 끼어들거나, 수식하는 서술어의 바로 앞 이외의 자리에 부정소가 나타나는 등 특이한 부정문의 유형이 일부 발견된다.

【참고문헌】

- 고영근, 『개정판 표준 중세국어문법론』, 집문당, 2004.
- 김언주, 『금강경언해에 나타난 부정문 연구』, 『우리말연구』 30, 우리말학회, 2012, pp.145-171.
- 김영환, 『중세어 사전』,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3.
- 박재연, 『필사본 고어대사전』 3, 학고방, 2010.
- 유창돈,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출판부, 1964.
- 이태욱, 『15세기 국어 부정법 연구』, 보고서, 2001.
-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4 - 옛말과 이두, 어문각, 1992.
- 허 응, 『우리 옛말본』 - 15세기국어형태론, 샘문화사, 1975.
- 허재영, 『부정문의 통시적 연구』, 역락, 2002.
- 홍윤표 외, 『17세기 국어사전』, 태학사, 1995.

Abstract

A Study on Negative Sentences in the 15th century

Park, Hyeo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get characteristics about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5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 method of this paper is to classify and collect statistics of negative sentences in the 15th century Korean literatures, then to reclassify according to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redicates. This paper explain the feature and reason of the change of Korean negative sentences in the 15th century by these methods. The result of this paper is as follow.

Firstly, there was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in ‘ani’ and ‘mot’ negative sentences in 15th century.

Secondly, considered the rate of short and long form of negative sentences,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advanced stronger in ‘ani’ negative sentences than ‘mot’ negative sentences.

Thirdly, regardless of ‘ani’ and ‘mot’ negative sentences, the tendency of the long forms and type of ‘noun root+ani(mot)+ha-’ was increased in the predicate had the noun of Korean and Sino-Korean.

Finally, the tendency of long forms was concerned with the morphologic construction of predicates in negative sentences. A degree of the tendency was as follow. “derivative words > compound words > single words”.

Key Word : negative sentences in the 15th century, the tendency of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the restrictions on forming short forms in negative sentences, short forms in negative sentences, long forms in negative sentences

박형우

소속 :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소 : (363-7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태성탑연로 250

전화번호 : 043-230-3549

전자우편 : phwcgs@knue.ac.kr

이 논문은 2014년 6월 30일 투고되어
2014년 7월 2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7월 25일 게재 확정됨.